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0/26 ~ 11/1 운주사 집계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김원수	청우당
2	대승기신론 해동소 혈맥기 (1)	원효/공파스님	운주사
3	조용헌의 인생독법	조용헌	불광출판사
4	요가디피카	현천스님	선요가
5	경전의 힘	정운스님	담앤북스
6	오늘, 담마빠다 한구절 (법구경과 함께하는 365일 마음 일력)	불광편집부	불광출판사
7	삶이 지금 어딜 가느냐고 불러세웠다	원영스님/이소명	수오서재
8	그대 지금 간절한가 (무문관 일기)	동은스님	모과나무
9	아함법상의 체계성 연구	고익진	담마아카데미
10	박범훈의 불교음악 여행	박범훈	불교신문사

"붓다는 무엇을 생각했을까"



곰브리치의 불교강의

리처드 곰브리치 지음/송남주 옮김
불광 펴냄/2만 5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초기불교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이며, 예술사의 고전 〈서양미술사〉의 에른스트 곰브리치의 아들이기도 한 리처드 곰브리치 박사. 그는 붓다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 중 한 명이며,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말한다.

붓다는 인도 브라만교의 업(業, karma)과 제의(祭儀)라는 오래 묵은 사유를 윤리화함으로써 인류 문명의 지적 도약을 이루어냈다. 붓다의 윤리관은 철저한 개인의 판단과 책임이 뒤따른다. 윤리적 행동과 책임은 각자에게 있고, 여기에는 맹목적인 믿음이나 외부의 강요가 아닌 올바른 가르침을 기준으로 삼아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대에 이 말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2,600여 년 전 계급 사회였던 인도에서 이러한 사상이 태동한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이는 놀랍게도 19세기 유럽의 후기 계몽주의 사상과 유사할 만큼 혁신적이었다.

인도 사회서 업과 윤회, 신과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의는 붓다가 태어나기 전부터 깊게 뿌리내린 종교적 토대로 계급사회를 더 공고히 하는 데 활용됐다. 하지만 붓다는 이를 과감하고도 대담한 방법으로 재해석해 윤리화시킴으로써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주었다.

붓다는 자신이 깨달은 내용을 풍자와 비유를 통해 사람들에게 가르쳤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 풍자와 비유로 인해 후대의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당시 붓다의 제자들조차 붓다의 가르침을 오해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곤 했다. 특히 브라만교의 교리를 차용한 내용일수록 이 문제가 자주 불거졌다. 저자는 초기불교 경전과 브라만교 경전의 세밀한 비교 분석을 통해 그 오해의 내용은 어떤 것이 있고, 붓다의 진정한 사유는 무엇인지 규명한다. 이를 통해 종교의 창시자로서의 붓다가 아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흄과 같은 사상가의 범주서 붓다를 조명하고, 붓다의 위대한 독창성의 근원이 어디서 왔는지 설명한다.

붓다의 깨달음이란 무엇일까. 대부분 사람들은 깨달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고 시도하기보다 심오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선입견부터 갖게 된다. 이 책은 먼저 독자들에게 그러한 마음 상태에 주의를 준다. 붓다를 오로지 종교 지도자로만 보고 신비하게 여기는 것은 무익하며, 불교를 이해하는 데 큰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붓다는 대단히 지적이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인물이었다. 붓다는 설령 스승이라도 부적절한 발언을 하거나 잘못된 내용을 말했을 때, 제자들은 그것을 바로잡을 의무를 진다는 규칙마저 세웠을 정도였다. 이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사례이다.

이런 붓다 사유의 근간에는 모든 개인이 각자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철학이 깔려있다. 스승의 말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자신을 일깨울 수 있는 존재는 자신뿐

붓다 사유 근원 다가간 과감한 탐험
종교 걷어내면 비로소 보이는 '붓다'
붓다의 진정한 사유 밝히는데 초점

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하지만 고대 인도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던 브라만교 입장에서 보면 매우 도발적이고 위험한 발상이었다. 붓다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신자들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도록 가르쳤을 뿐, 장대한 이론체계를 만들거나 고매한 이상 같은 것은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번잡한 이론과 신비로움으로 치장된 브라만교의 용어를 적극 차용하여 일반화시키는 데 힘을 쏟았다. 붓다는 자신의 사상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의 언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했다. 그것이 가장 상대방을 설득하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단어로 업(karma)과 법(dharma)이 있다.

붓다는 브라만교서 '제의를 거행하는 성스러운 작업'을 뜻하던 업의 의미를 일반인의 행동범주 안에 포함시켰다. 다시 말해 브라만교만의 종교적 의미였던 '업'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 가능한 '행위'라는 보편적 의미로 재해석했다. 이 점이 붓다 사유의 독창성이며, 이것은 후에 '방편(方便)'이라고 불리는 붓다만의 독특한 설법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된다.

방편은 비유와 반어법을 풍부하게 사용한 설법 방식이다. 하지만 방편과 브라만교 교리의 차용은 많은 사람들이 붓다의 사상을 오해하게끔 만들었다.

이 책은 바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는 데 주력한다. 그래야만 붓다의 진정한 사유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교의 초기경전과 브라만교의 베다 성전을 비교 분석하여 오해를 밝히고, 진정한 붓다의 생각은 무엇인지 설명하는 데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곰브리치는 업설(業說)이야말로 붓다 세계관 입문에 가장 좋은 시작점이라고 말한다. 업은 붓다가 삶을 조망하는 근본 사상일 뿐만 아니라 기본 교리들을 논리적으로 일관되게 하는 핵심이기 때문이다. 업을 기본으로, 다양한 불교 용어의 사례를 짚으며 붓다 사유의 근원을 알려주는 이 책은 지금까지 접하지 못한 새로운 붓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준다. 불교보다 '붓다'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우선순위로 필독해야 한다.

리처드 곰브리치는 미술에 관한 가장 유명한 책 〈서양미술사〉를 쓴 세계적인 미술사학자 에른스트 곰브리치(Ernst Gombrich. 1909~2001)의 아들이기도 하다. 〈서양미술사〉가 복잡한 서구의 미술사를 알기 쉽게 정리, 미술사가 낡은 것이 아니라 오늘의 현재와 닿아 있는 생생한 연결고리임을 보여 주었듯, 이 책은 2,600여 년 전 붓다의 독창적 사유를 치밀하게 좇으며 불교에 대한 다음 의문에 답한다.

- 붓다는 왜 위대한 사상가인가?
- '업(業)은 작용이지 존재가 아니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 붓다는 브라만교와 자이나교의 교리를 훔쳤는가?
- '무아(無我, No Soul)'인데 무엇이 '윤회'하는가?
- '열반(涅槃)은 언어의 세계를 초월한 상태'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 이 책은 믿을 만한가?

저자 리처드곰브리치는?

세계적인 불교학자인 그는 1970년 옥스퍼드대학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초기불교 권위자인 그는 '옥스퍼드 불교학센터(Oxford Centre for Buddhist Studies)'를 설립했으며, '영국불교학협회(UK Association for Buddhist Studies)' 회장이기도 하다. 2004년 옥스퍼드대 교수직을 정년 퇴임할 때까지 28년 동안 산스끄리뜨 강좌 주임교수(Boden Chair), 발리올(Balliol)대학 교수회의 일원으로 활동했다. 200여 편의 논문과 단행본을 저술하였으며, 현재 세계 각지의 대학에서 강연을 계속중이다.

"불교는 곧 연기를 알고 믿는 것"



부처님이 깨친 연기(緣起) 이야기

김성규 지음/통섭출판사 펴냄/3만원



저자, 전법만 생각하는 '전법광'
'연기'에 관한 명쾌한 설명 특징
"지혜의 근본 속성은 바로 연기"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불교에서 '연기(緣起)'를 설명할 때 많이 쓰는 말이다. 당연한 이치라 여겨 오히려 무시되는 경향까지 있다. 하지만 진짜로 '연기'를 이해하고 믿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영남대 의과대학 교수 가운데 불법 전법광(狂)이 있다. '광'이란 뜻은 말 그대로 '미쳤다'는 표현이다. 그는 "그만큼 좋아하고, 앉으나 서나 부처님 말씀 이외에는 소중한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자신에게 붙여진 '전법광'의 이유를 설명한다. 50여 년 전 고등학교 시절, 전법의 삶을 서원한 김성규 교수〈사진〉는 "부처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는 신심'과 '진리가 주는 환희'가 삶의 원동력이 된다"고 고백한다.

앉아도 일어서도 오로지 '전법'만 생각하는 삶, 그의 전법 열정이 또 하나의 책을 만들어냈다. 제목은 〈부처님이 깨친 연기(緣起) 이야기〉이다. 1990년, 김 교수가 처음으로 불교의 연기론과 물리학을 상대론으로 접목 시킨 저서 〈불교적 깨달음과 과학적 깨달음〉을 낸 후 28년 만에 다시 연기론에 관한 전문 불교 서적을 세상에 펼쳐내 보인 것이다.

그는 이 책에서 먼저 "불자들이 정작 인과를 믿지 않는다"고 딱 잘라 말한다. 저자는 책 속에서 부연 설명을 잇는다. "지금 우리는 온전하게 믿지 않고 있습니다. 49%는 못 믿고 51%는 믿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의 현재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생에 내가 살아온 모습대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은 51%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공부를 통해 100%로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는 100% 완전히 믿는 삶이 주는 변화를 강조한다. 그런 삶을 일깨우기 위해 김 교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통해 '연기'를 강조하고 설명한다.

김 교수는 "불교를 믿는다 했을 때는 연기를 믿는 것"이라며 "철저히 알고 인식하면 인과응보를 믿고 인과 법칙을 믿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총 5장 22강으로 구성돼 있다.

제 1장 '불교란 무엇인가'에서는 무아와 무상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부처에 대한 기본 이념을 쉽게 정리했다. 제 2장과 3장서는 불교 교리의 체계와 존재에 대한 이해를 연기적 관점서 구체적으로 엮어 설명한다. 4장서는 연기의 체계 및 구조를 명쾌히 밝혔다. △시간연기_육육법연기 △오온연기 △오온연기의 발생양식 △12연기_시공간연기 △12연기의 성립 등 어려워 보이는 교리 개념까지 설명해 둬 깊이 있는 불교학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된다. 마지막 5장에서는 연기의 실천을 강조했다. "지혜의 속성은 연기"라고 말하는 김 교수는 "불교는 지혜와 자비의 종교라고 합니다. 지혜는 부처님께서 깨치신 연기입니다. 그리고 자비는 연기의 내용인 무아와 무상을 인식하고 나면 생기는 것입니다. 지혜의 속성은 연기이며, 무아와 무상을 인식함으로써 자신에게 쌓이는 그 능력과 성품이 바로 자비입니다"라고 설명한다.

이 책의 저자인 김성규 교수의 법명은 정명(淨名)이다. 그는 1955년 경주서 태어나 청소년기를 보내며 불교와 인연을 맺은 후 전법 활동을 펼쳐왔다. 1987년 영남대서 이학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영남대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중이다. 2013년 불교 운동을 아우르는 (사)통섭불교를 설립해 월간지 통섭불교, 통섭불교강의 등을 통해 전법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저서로는 1990년 〈불교적 깨달음과 과학적 깨달음〉을 시작으로 〈화두〉 〈이것이 불교다〉 〈마음은 보석〉 〈대승기신론〉 〈2600년 불교의 역사〉 등 다수가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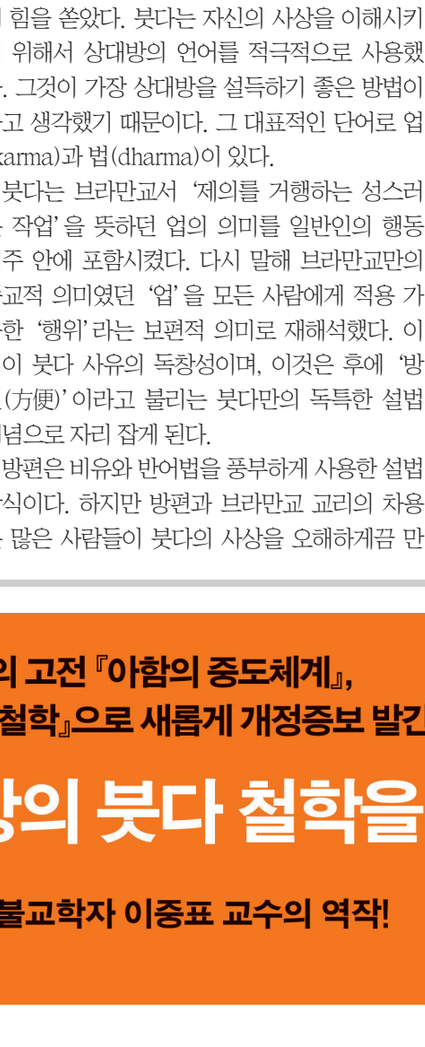
한국 불교학의 고전 『아함의 중도체계』,
27년 만에 『붓다의 철학』으로 새롭게 개정증보 발간!

서양철학 그 이상의 붓다 철학을 논하다

한국을 대표하는 불교학자 이중표 교수의 역작!

"흑자는 불교가 어떻게 철학의
제(諸) 문제와 함께 다루어질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할지도 모른다.
나는 이 책에서 그 의문을 해소할 것이다."
_저자의 말

한국 불교학의 고전
『아함의 중도체계』
개정증보판



붓다의 철학
중도, 그 핵심과 사상체계

이중표 지음 | 464쪽 | 27,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홈페이지 www.bulkwang.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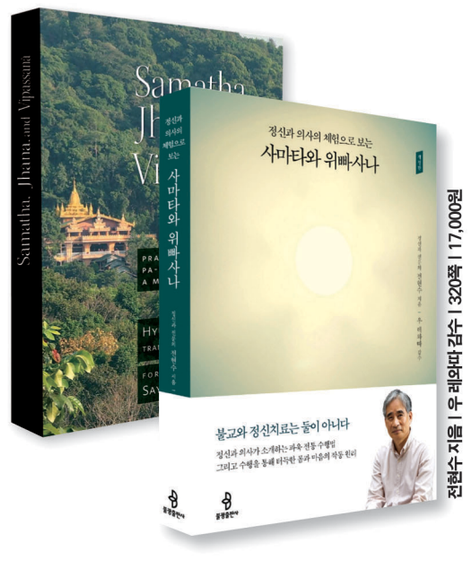
정신과 전문의 전현수 원장의
영문판 출간에 이어 한국어 개정판 출간

『정신과 의사의 체험으로 보는 사마타와 위빠사나』

우 레와따, 크리스토퍼 거머 추천!

"진리를 있는 그대로 알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심오한 메시지를 전한다."
_우 레와따 스님(세계적인 명상의 스승)

"붓다의 본래 가르침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을 바탕으로 수행법을 상세히 설명하여
불교 경전에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_크리스토퍼 거머(마음챙김 심리치료의 세계적 권위자)



전현수 지음 | 우 레와따 감수 | 320쪽 | 17,000원